

ITU-T 전기통신표준자문반 (TSAG) 회의

안근영 국립전파연구원 과장



1. 머리말

ITU-T의 전기통신표준화자문반(TSAG: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Advisory Group)은 ITU-T의 표준화 전략 및 정책, 작업계획 및 방법, 표준화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표준화 활동에 있어서 다른 표준화 기구들과의 협력 및 조정 활동을 검토하고 조정하는 ITU-T의 자문조직이다. TSAG은 1992년 ITU 추가 전권회의 결의 제3호(각 부문별(ITU-R/T/D))의 신설권고에 따라 1993년 제1차 세계전기통신표준총회(WTSC: World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Conference)에서 신설되었다. 금년의 경우 11월에 두바이에서 개최될 2012년 세계전기통신표준총회(WTSA: World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Assembly) 준비와 차기회기 연구반 구조조정 등 논의를 위해 지난 1월 10일~13일과 이번 7월 2일~4일 간 2회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7월 TSAG 회의는 ITU 46개 회원국 133명이 참석했으며 한국에서는 국립전파연구원 안근영 과장을 수석대표로 8명의 국가대표가 참가하였다.

2. 주요 회의 내용

2.1 차기 연구회기(2013~2016) 연구반 구조조정

지난 1월 TSAG 회의에서 ITU-T 구조조정 문제는 각 연구반별로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에 있어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금번 회의에서는 연구반 구조조정의 원칙 및 연구반별 연구주제 통폐합과 신설방안에 대한 일부 회원국과 연구반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TSAG 회의에서 연구반 구조조정 관련하여 논의된 국가별 기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중국 : 현 체제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핵심분야(IoT/M2M, Cloud computing, smart grid)에 대한 연구 강화 등 구조개편의 4대 원칙 제시
- 일본 :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생산성 및 효율성 극대화, 표준화 격차 해소 등 구조개편의 7대 원칙 제시
- 한국 : 현 체제 유지하되 SG 9와 SG 16은 차기회기에도 유지

2.2 연구반들의 차기회기 신규 연구과제 제안 및 개정 등

차기 연구회기 연구반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10개 연구

반들의 신규연구과제 제안 및 개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다만 이들 중 특히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SG들의 신규연구과제 및 개정이 승인되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 SG 13의 클라우드 컴퓨팅 에코시스템 및 일반적 기준 등 신규 연구과제(Q26/13~Q28/13) 승인
- SG 17의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과제 개정 승인
- SG 11의 차기회기 연구과제인 'Use cases and scenarios for interoperability testing of cloud computing' 승인

2.3 세계 전기통신표준총회(WTSA) 결의 검토

금번 회의에서는 결의 1(ITU-T Rules of procedure), 결의 18(ITU-R 및 ITU-T Coordination), 결의 31(Associate), 결의 68(Evolving role of WTSA), 결의 71(Academia)의 개정 제안에 대하여는 별다른 이견 없이 WTSA-12에서 최종 논의하기로 했다.

반면에 결의 35(Appointment and maximum term of office for chairmen/vice-chairmen) 개정과 관련, 러시아는 의장과 부의장의 지명과 관련된 자격요건에 임기(중전 7년에서 연속회기 중 2회 연임 불가), 회원국 사전 자문 요건을 추가하고, 지역적 안배와 성비균형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개정 제안하였으나 채택되지 못했다. 또한 TSAG이 제안한 SG 의장과 부의장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거나 연구반 회기 중 50% 이상 불참 시 연임을 불가하도록 하자는 것 역시 채택되지 않았다.

모바일 기기 자판의 국제적 문자배열 표준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현행 ITU 권고 E.161에 영어 이외 언어를 추가하도록 개정을 촉구하는 한국측의 WTSA 신규결의 제정 제안에 대해 회원국들 반대는 없었으며, 그 내용상 SG 2에 다루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외 결의 73(ICT and climate change)에 ITU-T SG 5 연구반 및 ITU-T의 기후변화 관련 활동사항을 추가하여 개정하자는 한국측 제안에 대하여는 회원국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다.

2.4 ITU-T 권고 A 시리즈 및 Supplements 검토

금번 회의에서는 권고 A.1(ITU Working Method), 권고 A.2(Presentations of contributions to ITU-T), 권고 A.5(Referencing documents of other organizations in ITU-T Recommendations)의 개정 제안에 관한 검토가 있었으며,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 없이 WTSA-12에서 최종 논의하기로 하였다.

이외 권고 A.4(Communication process between ITU-T and Forums and Consortia) 및 A.6(Cooperation between ITU-T and national and regional SDOs)는 규정내용이 매우 유사하므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권고 A.7(ITU-T Focus Groups)의 개정에 대해서는 선진국진영과 개발도상국 진영 간의 의견이 분분했으나 ①현행유지, ②현행을 유지하되, 장애인의 참여촉진, ③FG 참여자에 대한 ITU 자원 지원을 정한 일본측 제안 반영을 두고 추가로 논의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TSAG이 제안한 권고 A.3 Supplement 3 for Agreement, 'IETF and ITU-T collaboration guidelines' 개정 제안에 대하여는 이번 TSAG 회의에서 승인하기로 했다.

3. 그 밖의 이슈

3.1 ITU-T 신규 포커스 그룹 신설 및 기존 그룹 이관 및

종료 등

금번 회의에서 덴마크 Alborg 대학 산하 CTIF(The Center of TeleInfrastruktur)에서 ITU 표준화 활동에서의 대학과 산업체 간 표준화 지식을 교류하고 젊은 대학 졸업생들에게 창업가 정신을 심어줄 목적으로 교육에서의 표준에 관한 신규 포커스 그룹 설립 제안이 있었다. 이에 대해 회원국들은 표준과 교육에 관한 FG의 역할과 업무 범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표준과 교육에 관한 신규 FG 신설은 TSB 의장 내 애드혹 그룹으로 두기로 하되 해당 FG의 ToR 등에 대한 회원국 의견수렴을 2주 간 받기로 하였다.

이의 IPTV-JCA 모그룹을 SG 13에서 SG 16으로 이관하는 것과 SG 13의 NGN-JCA/GSI 활동을 종료하는 것을 승인하였다.

3.2 ITU-T 적합성 및 상호운용성 시험사업계획 관련

KPMG 보고서 검토

금번 회의에서는 2011년 10월 TSB가 공지한 ITU-T의 적합성 및 상호운용성 시험(CIT)사업계획에 따라 사업계획 수립 전문회사인 KPMG가 이의 실행을 위해 필요한 ITU 사무국 사업내용, 인력, 조직 예산 규모에 대한 연구 결과를 제안하였다. 특히 이 보고서에서 ITU-T의 사업내용으로 ①적합성평가(Conformance Assessment), ②상호운용성 이벤트(Interoperability events), ③담당 인력들의 능력 배양(Human Resource Capacity Building), ④개도국의 시험설비 지원(Test Facility Development)을 들었는데, 이에 대해 선진국 진영은 표준과 적합성평가의 분리, 이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표준의 의무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으며, 개도국 진영은 기기의 적합성평가 및 상호운용성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이 사업이 필요함을 제기하였다. 결국 이 보고서 승인여부에 대해 선진국 진영과 개도국 진영 간에 의견이 분산됨에 따라 금번 회의에서 이 보고서를 승인하지는 못했으며, 러시아 측의 제안에 따라 이 문제에 대해 비공식 의견 반영자 그룹(informal reflector group)을 구성하여 선진국과 개도국 간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기로 하였다.

4. 맺음말

차기 TSAG 회의를 2013년 6월 4일부터 7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하기로 함으로써, 금번 TSAG 회의는 2012년 WTSA 회의 개최 전에 WTSA 결의 및 ITU-T A 시리즈 권고 검토를 위한 ITU-T 차원의 마지막 회의가 되었다. 특히 금번 회의 논의 사항 중 차기회기 ITU-T SG 구조개편 결과에 따라 국내 표준화 대응전략의 개편과 변화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에 대한 SG 그룹별 신규 연구과제 상정 및 개정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지속적인 참여가 요청된다. 이와 더불어 ITU-T 차기회기 작업프로그램인 적합성 및 상호운용성(C&I) 사업계획에 국내 시험인증기관이 참여하는 경우 개도국 대상의 신규 컨설팅 시장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한국이 모바일 기기 자판의 국제 표준화와 관련된 ITU-T 권고 E.161 개정을 위해 제안한 WTSA 신규 결의 추진과 관련하여 ITU 회원국 공감대 형성을 통해 2012년 WTSA 회의에서 신규 결의로 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더불어 차기회기 SG 2의 연구과제가 되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